

**선택 6·4**

**이런 후보가 좋아요**



광주·전남 유권자 30명에 듣는다 <1>

**정치경험 적더라도 참신해야**

임동훈(조선대병원 비뇨기과 교수·44)=기존 정치인이나 내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정치꾼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 의원이나 단체장을 수차례 했으면서도 다시 출마하는 정치인은 개인의 권력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초심을 잃게 되고, 주변 지지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가 혼탁해진다. 이번에는 시장이든 지방의원이라도 정치적 능력이 있다면 경험이 적더라도 참신한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중소 판로, 지원정책 1순위로**

강영태(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56)=앞으로 출범할 민선 6기의 성공여부는 지방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문제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고려해야 할 지원정책 우선 순위이다.



**다문화가정, 교육·일자리도 고민**

후쿠나카 히사에(여·51)=한국에서 산지 무려 18년이나 지났고 주부로서 학부모로서 경제나 교육에 관심이 많다. 전남에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유권자다.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왔다. 안타깝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에는 단지 다문화가족을 복지 속에서 보호하는 일장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자녀 교육, 일자리에 대해서도 고민해줬으면 한다.



**주민 섬기는 일꾼이어야**

김병중(공무원·45)=6·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자 중 40.8%가 전과자로, 그 중에서는 성폭행범도 있다고 들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도덕성을 갖춘 후보가 좋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치인의 정책은 실령 사람들에게 낯설어 처음에는 약간 의아해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 봉사하고 주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애항심은 물론 겸손한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서민정책에 힘써 줬으면**

홍희희(대인시장상인회장·66)=광주에서도 동구는 특히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단위별 맞춤형 특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후보가 좋다. 대기업 행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고향 영세상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1차 분수령”... 사전투표에 사활 건다

與, 지지를 높은 고�령층 공약 전국 당협별 홍보활동 野, SNS·문자 등 ‘사전투표 파도타기’ 이벤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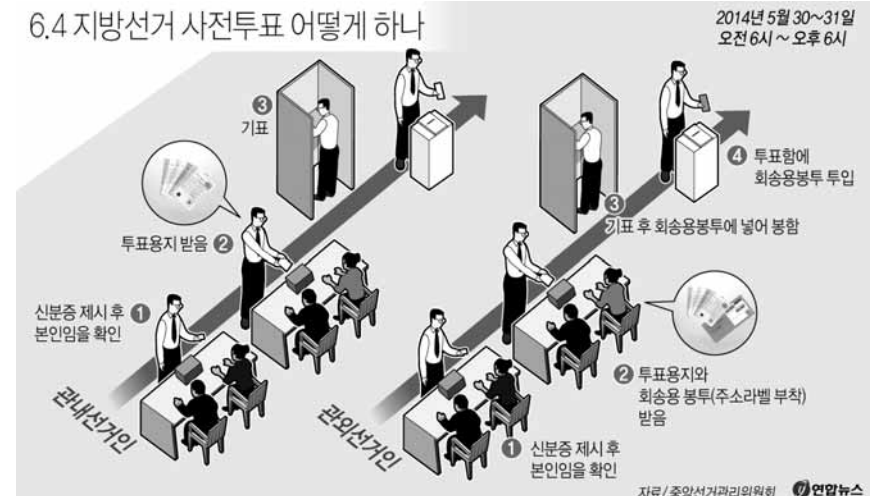
### 오늘·내일 첫 시행

6·4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도입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투표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9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각 정당과 후보 캠프는 30~31일 이틀간 시행되는 사전투표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우선 사전투표제가 과거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젊은 층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면서 젊은 층에 인기 있는 후보,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

오고 있다. 이 경우, 당 인지도 혜택을 입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나 개인적 인지도가 높은 현직 단체장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전투표제가 반드시 젊은 층의 투표율을 올린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있다. 젊은 층의 경우 정치에 관심이 거의 없어 선거일을 하루~이틀 늘린다 해도 참여폭은 극히 제한적으로 늘어날 것 이란 분석 때문이다. 그에 비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세를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30~50대는 선거일이 늘어날수록 투표율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이라 전망도 있다. 이를 위해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투표는 의의, 사전투표 5월30~31일’, ‘6월4일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후보나 인지도는

낮지만 정책적 역량을 갖춘 참신한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분석이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중앙당도 상이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사전투표 적극 참여를 호소했다. 새누리당은 본 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역시 투표 충성도가 높은 고�령층의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온라인 공모전을 진행해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활용, 전국 당협별로 사전투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젊은 층이 ‘징검다리 황금연휴’를 이용해 대거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사전투표를 끌어올리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를 위해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투표는 의의, 사전투표 5월30~31일’, ‘6월4일 투표를 못 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사전투표를

딱, 끝!’ 등 유행어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모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1인당 최소 10명에게 전달하는 ‘사전투표 파도타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주요 후보들도 사전투표 참여 호소에 적극 나섰다. 새정치연합 운영한 광주시장 후보는 논평을 내고 “내 삶과 광주를 변화시키고 정권교체를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해 그동안 선택을 기다리고 계셨던 광주시민 여러분, 30일과 31일 광주의 첫 시민시장을 뽐낼 수 있는 첫 번째 투표 기회에 찾아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무소속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 측은 이용섭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식구들과 지인들의 손을 잡고 사전투표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박지경기자jpark@



## 전남 격전지 ‘과열·폭로전’

후보들 “나주시 재정의탄” “여수시장 불공정 경선” 공방

6·4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남 일부 지역에서 후보 간 폭로전과 명예훼손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나주시 일부 유권자에게 “나주시 미래발전사업단지 조성 관련, 나주시의 금고가 범원 압류됐다”는 내용의 괴문자가 나왔다. 시금고가 압류되는 등 시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이에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나서는 등 혼란을 빚었다. 이날 나주시는 “광주지법이 지난 15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을 통해 나주시 특별회계 20억원과 일반회계 50억원 등 나주시 금고 압류를 결정했다”면서 “시는 강제집행 정치신청을 곧바로 제출하고 3일 뒤인 18일 50억원을 공탁함으로써 2심 결과 때까지 일시 압류가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선거에 출마한 임성훈 현 시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잘못된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가집행이었다”면서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악의적인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여수에서도 때마침 명예훼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근·주승용 국회의원 같은 당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날 여수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의 흑색선전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소속 김충서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 때 전화 착신전환 여부 운운하며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규 전 후보는 측근이 돈을 뿌리다 검찰에 구속된 것을 마치(새정치민주연합) 주철현 후보가 기획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덮고 탈당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며 “김충서 후보와 김영규 전 후보에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여수시장 경선에서 주철현 후보에 패한 김영규 전 여수시장의 위장은 지난 28일 여수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함께 무소속 김충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주민센터로 오세요” 6·4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용봉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사전투표 관리용품 등을 설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선관위, 투표소 특별단속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제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29일 시·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주변에 공경선거지단 등을 배치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경찰과 공조해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권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오광록기자 kro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131226-중-52297호

#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 아룅기공주식회사 사원모집

당사는 40년 전통의 오일펌프 전문 제조업체로서 국내 및 수출증가와 해외 법인 성장에 따른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모집부문	모집분야	인원	자격요건
관리직	기술		기계설계(컴프)가능자 및 경력자 우대
	품질		기계(컴프)분야 경력자 및 일어가능자 우대
	영업관리	경력,신인	여직원, ERP가능자
	생산기술	약간명색	MCT,CNC관리 유경험자 (회직자 시간제 근무 가능)
생산기사	수행기사		수행 경력자 우대
	생산직		참고 정리 및 수출품 포장

2.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이력서 상단에 응시분야 및 희망 년봉 표기)

3.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E-Mail (t3714@nate.com) 접수

4. 급여조건: 당사규정 및 본인 면접후 결정

5. 복리후생: 4대보험, 주5일근무, 상여금500%, 각종경조비지급, 중식제공,통근버스(광주)운행

6. 제출기한: 2014. 5. 28 ~ 2014. 6. 10

7. 근무지: 본사 담당 공장 (동광주 IC에서 20분 거리)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기획본부 (061-380-2201) 문의요함

아룅기공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금성면 담소동 48 (우 : 517-811)

Tel:061380-2200 Fax: 382-3094